투어 번호
LKBQXZBRVW

성역 발견 (11일)

11일 · 10박 | 운전기사 겸 가이드 동반 프라이빗 투어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이 체험 소개

이 11일 투어는 산악 수도 캔디를 건조 지역의 고대 왕국, 북쪽의 자프나 반도, 동쪽 해안의 트린코말리 해변과 연결합니다. 여행 전반에 걸쳐 전용 차량과 기사 겸 가이드를 이용하여 문화 중심지에서 위대한 고고학 유적지를 거쳐 해변에서의 며칠로 마무리합니다.

주요 명소로는 캔디의 신전 치아 사원과 왕립 식물원, 담불라의 동굴 사원, 시기리야의 바위 요새, 미너리야 국립공원에서의 코끼리 사파리, 폴론나루와와 아누라다푸라의 폐허 도시가 있습니다. 경로는 북쪽으로 자프나의 섬 사원을 거쳐 트린코말리로 향하며, 여기서는 속도를 늦추고 비둘기 섬에서 스노클링을 하고 해안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 여행 일정은 스리랑카의 고대 건축과 종교 유적지를 철저히 살펴보면서도 여행 마지막에 진정한 해변 휴식을 원하는 여행객에게 적합합니다.



일별 여행 일정

Day 1 공항 → 캔디

캔디 도착 후 문화 체험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캔디 문화 공연

불춤, 칼춤, 드럼 연주에 맞춘 캔디 전통 무용 등 스리랑카 전통 예술을 선보이는 한 시간 분량의 공연입니다.

Arian Zwegers · CC BY 2.0

Day 2 캔디

캔디의 대표적인 명소 두 곳, 식물원과 불교 성지를 둘러보는 하루입니다.



페라데니야 왕립 식물원

19세기 초에 조성된 정원으로, 난초와 향신료, 약용 식물을 포함해 4000여 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으며, 희귀한 나무들이 늘어선 가로수길, 캐논볼 나무, 현수교가 있습니다.

Bernard Gagnon · CC BY-SA 3.0



불치사(佛齒寺)

16세기에 지어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부처의 신성한 치아를 모시고 보호하기 위한 사원이며, 화려한 벽화가 그려진 홀과 조각된 기둥, 금빛 불상들이 있습니다.

A.Savin · FAL

Day 3 캔디 → 마탈레 → 담불라 → 시기리야

시기리야로 향하는 길에 마탈레 인근의 향신료 농원과 담불라의 석굴 사원을 들러봅니다.

유포리아 향신료 허브 가든

스리랑카의 향신료 수도로 불리는 마탈레 인근의 향신료 농원으로, 가이드와 함께 섬의 향신료와 허브, 그리고 아유르베다에서의 활용법을 배우는 투어가 진행됩니다.



담불라 황금 사원

기원전 1세기에 지어진 석굴 사원으로, 부처의 일생을 그린 벽화와 다섯 개의 주요 석굴에 걸쳐 수백 개의 불상이 있으며, 신성한 왕의 석굴과 위대한 왕의 석굴을 포함하고, 사원 단지 밖에는 거대한 황금 불상이 있습니다.

Lankapic · CC BY 2.5

Day 4 시기리야 → 민네리야 → 시기리야

시기리야 바위 요새 등반과 민네리야 국립공원 사파리가 함께하는 하루입니다.



시기리야 바위 요새

5세기경 카샤파 왕이 세운 바위 요새로, 사자 발 모양의 입구를 지나 들어가면 고대 벽화와 계단식 정원, 지금도 작동하는 저수조, 그리고 옛 왕궁으로 이어지는 터널을 만날 수 있습니다.

Wrobell · CC BY-SA 3.0



민네리야 국립공원 사파리

5월부터 10월 건기에 150마리가 넘는 코끼리가 모이는 '그레이트 엘리펀트 개더링'으로 유명한 공원을 둘러보는 사파리로, 그 외에도 다양한 포유류와 조류, 파충류, 양서류를 만날 수 있습니다.

Stuart Pinkney · CC BY 2.0

Day 5 시기리야 → 폴론나루와 → 아누라다푸라

스리랑카의 옛 수도였던 폴론나루와와 아누라다푸라 두 곳을 둘러보는 하루입니다.



폴론나루와

10세기부터 13세기까지 번영했던 스리랑카의 두 번째 고대 수도의 유적지로, 갈 비하라야, 바타다게, 연꽃 욕조, 랑카틸라카 사원, 파라크라마바후 왕의 석상 등이 있습니다.

Bernard Gagnon · CC BY-SA 3.0



아누라다푸라

10세기까지 천 년 넘게 수도 역할을 했던 폐허 도시로, 파고다와 승원 건물, 연못들이 남아 있으며, 제타와나라마야, 스리 마하 보디, 아바야기리 수도원 등이 포함됩니다.

Thisaru Tharuka · CC BY-SA 4.0

Day 6 아누라다푸라 → 자프나

북쪽으로 향하는 여정에서는 나가족과 초기 불교 역사와 관련된 두 섬을 둘러봅니다.



나가디파 푸라나 비하라야

스리랑카에서 가장 성스러운 불교 성지 열여섯 곳 중 하나로, 부처가 두 번째로 섬을 방문했을 때 머물렀던 곳으로 전해지며, 독특한 건축 양식과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derivative work: Taprobanus (talk) NainathivuNahaVihara.JPG: Regunathan Umapathy · Public domain

나이나티부

나가디파 또는 마니팔라바뭄으로도 알려진 자프나 북쪽의 역사적인 섬으로, 뱀을 숭배했던 나가족과 관련이 있으며, 나이나티부 나가푸샤니 암만 사원에서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ay 7 자프나 → 트링코말리

트링코말리로 향하는 여정에는 고대 사원과 식민지 시대에 지어진 요새가 포함됩니다.

고대 사원

인도의 시성(詩聖)들이 칭송한 사원으로, 그 역사를 담은 벽화와 기원전 1580년경의 석굴 성소, 기원전 400년경에 조성된 본당, 그리고 라바나 왕의 거대한 석상이 있습니다.



트링코말리 요새

1624년 포르투갈인들이 처음 세운 요새로, 옛 코네스와람 사원의 석재가 일부 남아 있으며, 이후 네덜란드인들이 철거하고 재건한 프레더릭 요새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Kondephy · CC BY-SA 4.0

Day 8 트링코말리

트링코말리 해안의 해양공원을 탐험하는 하루입니다.



피전 아일랜드 국립공원

산호초로 둘러싸인 크고 작은 두 개의 피전 아일랜드로 이루어진 공원으로, 바위비둘기들의 서식지이며 다양한 산호와 해양 생물을 볼 수 있습니다.

AntanO · CC BY-SA 4.0

Day 9 트링코말리

트링코말리 해안에서 보내는 자유의 날입니다.

트링코말리 해안

황금빛 모래와 야자수, 맑고 푸른 바다가 펼쳐진 해안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Day 10 트링코말리 → 콜롬보

투어는 콜롬보로 돌아와 수도의 명소와 쇼핑 지역을 둘러봅니다.



콜롬보 시내 명소

올드 라이트하우스, 옛 국회의사당, 갤르 페이스 호텔, 갤르 페이스 그린, 강가라마야 사원, 국립박물관 등 수도의 대표 명소를 비롯해 독립 광장, 경마장, 부티크 상점들을 둘러봅니다.

Gihanud2001 · CC0

Day 11 콜롬보 → 공항

아침 식사 후 체크아웃하고 출발을 위해 공항으로 이동합니다.

포함 사항

포함

- Transport in a Private Vehicle, Fuel, Parking & Highway tolls.
- Service of English-Speaking Chauffeur Guide.
- All prevailing taxes and service charges.

미포함

- Hotel Accommodation and Meals.
- Entrance fees to the respective sites.
- Expenses of personal nature.
- Visa and Related Expenses.
- Tips & Portages.